

혼인 '폭발'... 작년 1만2000건 돌파 최고수준

ECONOMY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광주 28년만에 10% ↑ 전남 14.5% 최대증가 남자 초혼 연령 올라

지난해 광주지역 혼인 건수가 28년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남지역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1990년대생들이 결혼 적령기에 들어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빛어진 현상으로 분석된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의 혼인 건수는 5688건으로 전년(5169건)보다 10.0% 늘었다. 이는 1996년(1만1822건) 13.9%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다. 광주의 혼인 건수 추이를 보면 2000년(9557건)을 기점으로 1만건 대가 붕괴됐다. 이후 7000~8000건 대를 오르내리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021~2022년 4000건 대(4901건·4092건)까지 추락했다.

전남의 혼인 건수 증가율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남의 혼인 건수는 7049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6157건)과 비교하면 14.5% 증가했다. 관련 통계 집계 시작된 199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전남의 혼인 건수 추이는 2012년 9827건을 기록하며 1만건 대가 무너졌다. 또 2013년에서 2014년 9995건에서 9357건으로 하락전한 후 10년 연속(2015년 9275건, 2016년, 8554건, 2017년 8049건, 2018년 7587건, 2019년 7413

건, 2020년 6365건, 2021년 6201건, 2022년 6181건, 2023년 6157건)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는 '2차 예코붐 세대'인 1990년대생들이 30대 초·중반 연령대에 진입했고,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및 혼인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률'의 경우 광주는 4.0건으로 전년

(3.6건) 대비 0.4건, 전남은 3.4건에서 3.9건으로 0.5건 증가했다. 평균 초혼연령은 광주 남자 33.8세, 여자 31.5세로 1년 전(광주 33.8세, 여자 31.3세)보다 0.1세, 0.2세 증가했다. 전남은 남자 33.5세, 여자 30.8세로 전년(남자 34.0세, 여자 30.8세) 대비 남자만 0.5세 낮아졌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광주는 441건으로 전체 혼인 건수의 7.8%를 차지했다. 전남은 736건으로 10.4%가 외국인과의 혼인이었다.
송대홍 기자 sdw0918@gwangnam.co.kr

KCA, 3기 전자파 프렌즈 모집 내달13일까지 중학생 이상 10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자파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3기 '전자파 프렌즈'를 공개모집 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자파 프렌즈'는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SNS를 통해 전파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난 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5년도 제3기 전자파 프렌즈는 중·고·대학(원)생 1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또한 KCA에서 운영하는 '미래네일 일 경험 사업' 인턴 참여 시 우대받게 된다. 제3기 전자파 프렌즈 모집 세부사항은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emf.kca.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I 콘텐츠 제작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다.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16일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 공개와 함께 개별통지 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왼쪽)이 20일 제조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전남 화순군에 소재한 펌프 생산 전문기업 하서산업(주)을 방문했다.

광주조달청, 펌프 생산 기업 하서산업 방문

광주지방조달청장(김우환)은 20일 전남 화순군에 소재한 펌프 생산 전문기업 하서산업(주)(대표 김상국)을 방문해 현장 소통활동을 나섰다. 이번 방문은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성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현아 기자 aura@



한국전력과 서울대학교, KT는 최근 전력산업 특화 AI 개발·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서울대-KT, 전력산업 특화 AI 실증 '맞손'

전력망 스마트화·AI 융합 협력 인공지능 기반 신기술 활성화

한국전력과 서울대학교, KT가 인공지능(AI) 개발을 통해 전력산업 혁신을 이끈다. 한전은 지난 19일 서울대, KT와 전력산업 특화 AI 개발·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력망 스마트화와 분산에너지 확산 등 변화하는 에너지산업 환경에 대응해 전력산업에 특화된 AI 솔루션과 인프라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국가 전력시스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먼저 'Hybrid

Cloud 기반 전력산업 특화 AI 솔루션·보안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부망 생성형 AI와 외부망 범용 생성형 AI를 결합해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면서 최신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본격적인 AI 모델 개발 전 보안 통제 정책을 적용해 정부의 보안 가이드라인 충족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AI 기반 에너지 신사업과 신기술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단계적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다. 한전은 AI 기반 융복합 신사업 모델 발굴 및 실행 전략 수립을 총괄하며, 서울대는 전력시스템 선진적 전략 및

보안 기준 정립,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KT는 보안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 AI 모델 실증과 최적 AI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전은 AI의 예측력과 실시간 대응력을 활용해 전력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서비스 혁신 및 IT 등 타 산업과의 신사업 모델 개발을 통해 국가 차원의 편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금은 인공지능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생태계의 AI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이 협력하면 한국 전력산업이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 잡고,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어촌공사-수산자원공단, 탄소중립 실현 협약

바다 생태계 보전 협력도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블루카본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바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공사는 환경경영의 일환으로 블루카본 생태계 보전에 힘쓰고 있다. 지난

해에는 6개 사업지구 내에 약 19ha 규모로 자생하던 해상 갈피를 안전한 곳으로 이식해 연간 62.7t의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블루카본 생태계 보전과 어촌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어촌·어항 개발사업'과 수산자원공단의 '바다숲 조성 사업'을 연계한다.
이승홍 기자 photo25@

해양에너지 ESG위원회 개최

㈜해양에너지는 최근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위해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제15차 ESG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ESG위원회 운영계획,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WHSE추진 실적 및 계획 공유, 회사 발전방향 제안·토론 등 안건이 다뤄졌다. ESG위원회 운영계획으로 회사 신규사업 추진현황, 공급비용 집행현황, ESG 기반 인사제도 등을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위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해양에너지가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과 실행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회복지, 교육장학, 탄소중립,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사랑의 에너지'를 사회공헌 추진 방향으로 삼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송대홍 기자 sdw0918@gwangnam.co.kr

파인트리 요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내남동)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 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아침체조 (매일)

간호사 케어

신축 고급 실내 (물리치료)

- 넓고 쾌적 최신식으로 신축 고급요양원
- 축락의사(월2회), 외부강사(월18회)
- 상차림 및 행사 (생신 및 어버이날, 명절 등)
- 맞춤형 전문케어(치매, 파킨슨, 관절염, 당뇨, 알츠하이머, 요양보호사21)
- 물리치료 기기 다수 다양, 편리하게 이용
- 넓은 공동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